

# 70년대 디바 정미조 37년만에 가수 복귀

신곡과 히트곡 '개여울' 등 리메이크해 13곡 수록  
4월 10일 LG아트센터서 앨범 발매 기념 공연

1970년대를 풍미한 화가 겸 가수 정미조(67)가 37년 만에 가수로 복귀한다. 기획사 JNH뮤직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979년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수에서 은퇴한 정미조 씨가 이달 말 새 앨범을 발표하고 37년 만에 컴백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작년 수원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한 정미조 씨가 시간이 많이 흘러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 가수로 돌아온다"며 "앨범에는 월드뮤직 색채가 묻어나는 곡들이 수록됐다. 녹음 때 들으니 음색은 여전히 기품이 있다. 앨범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노래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재즈 색소포니스트 손성제가 프로듀싱한 앨범에는 손성제가 작곡한 곡을 비롯해 13곡이 수록됐다. 대부분 신곡이며 히트곡 '개여울'과 '휘파람을 부세요'를 리메이크해 담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와 졸업과 함께 1972년 데뷔한 정미조는 '개여울'과 '그리운 생각'이 동시에 히트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김소월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대표곡 '개여울'은 이후 심수봉, 적우, 왁스 등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한 명곡이다.

그는 이지적인 이미지와 기품 넘치는 목소리로 패티김을 잇는 대형 가수로 인정받았으며 '휘파람을 부세요', '불꽃', '사랑의 계절' 등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그중 '휘파람을 부세요'와 '불꽃'은 군사정권 시대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그는 데뷔 첫해 MBC와 TBC 등 방송사 신인상을 휩쓸었으며 1975년에는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했다. 또 1978년에는 아마추어 동경 국제가요제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 가창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 'TBC 소소소' 출연을 끝으로 화가의 꿈을 위해 가수 은퇴를 선언하고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 가수로 활동한 7년간 13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1993년 파리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이후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와 교수로 재직하며 20여 차례의 개인전과 100여 차례의 단체전을 열었다. 지난 2010년 전시를 결정한 콘서트 '31년만의 외출'을 개최하며 KBS '콘서트 7080'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미조는 오는 4월 10일 강남구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열 예정이다.

◀1970년대를 풍미한 화가 겸 가수 정미조가 37년 만에 가수로 복귀한다. 사진은 1975년 정미조 씨의 모습.

# “마음 편하게 촬영하며 연기하는 법 배웠어요”

24일 개봉 영화 '순정'서 첫 주연 김소현  
고흥 울로케...“전라도 사투리 꽤 힘들었죠”

“대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촬영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날 공기와 날씨, 배우들의 호흡과 감정까지 정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죠.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순정'에서 밝고 순수한 섬 소녀 수줍을 연기한 여배우 김소현(17)을 1일 만났다.

김소현은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 점을 묻는 말에 “마음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다”면서 “배우들이 합심해 이렇게 행복하게 촬영한 작품이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여배우 출신인 김소현은 2010년 '우리 이웃의 범죄', '파괴된 사나이'에 이어 2012년 '나는 왕이로소이다'로 스크린에 모습을 비쳤다. '순정'은 그가 첫 주연을 맡은 영화다.

“영화가 개봉하게 돼 기쁘지만, 걱정도 많아요. 영화 첫 주연작인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요. 전라도 사투리에 처음으로 도전했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연기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드라마 촬영이 겹치는 바람에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화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심했죠.”

김소현은 걱정 탓에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진 자신에게 이번 영화를 연출한 이은희 감독의 조언이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너 자신을 믿어와 내가 널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연기에 호흡하고 대화하는 일에 집중하자고요. 이번 작품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배역에 제 모습을 많이 녹여내자는 심정으로 연기했어요.”

극 중 그룹 엑소 출신의 배우 도경수와 풋풋한 첫 사랑 연기 호흡을 맞춘 그는 “실제로는 아직 첫사랑 경험이 없다”며 웃었다.

김소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홈쿨링'을 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진학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공부도 어중간한 것보다 꼭 부러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결심했어요. 아직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지난해 다섯 작품을 출연하며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낸 김소현은 손예진·박해일 주연의 영화 '택배우주'에서 손예진의 아역을 맡아 현재 촬영 중이다. 실제로 그의 외모는 손예진을 많이 닮았다.

“손예진 선배님과 작품을 꼭 같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손예진 선배님을 닮았다는 칭찬도 좋지만, 배우로서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개밥주는남자(재)	00 네트워킹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 객주2015) (재)	00 주말특별기획 (내발, 금사월)(재)	10 닥터 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재 50 SBS 12뉴스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재)	45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2 00 이연경의 직면직설	00 시사저널 그날(재)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30 쾌도난마	00 한국인의 밥상(재) 55 튜브생물체조(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4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우치원 30 이육성 PD의 요리인류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구리가 탐구생활
5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베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바이클론즈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10 이재 만나러 갑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밀착특보 풍문으로 들었SHOW(재)	00 KBS 뉴스7 30 필 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일의 성)
8 40 채널A 종합뉴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나는 몸신이다	00 시사 토크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객주 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스페셜 (리멤버-아들의 전쟁)
11 50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백행대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5 헌법의 TV연예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1:10 다큐 오늘	15:15 마야의 모험
05:30 건강천 아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05:40 다문화 사랑	(호주 동부 3,000km 남만유랑 3부-버디의 향기를 머금은 땅)	15:40 모피와 친구들
06:10 세계의 눈	12:00 EBS 정오 뉴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불개미 군단)	12:10 사선에서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6:45 덩동영 유치원 1~3(재)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13:40 사이먼-지구인 자격평가	17:45 로보카 폴리
08:00 덩동영 유치원 1~3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20 초등 2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45 스쿨랜드 절대비법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4:40 초등 6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55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4
09:40 부모-고수다	14:40 초등 4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9:00 물루토 비밀결사대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꼬마 철학자 후고	19:30 EBS 뉴스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신들의 사람들)
		20:50 세계테마기행 (올과 불의 땅을 찾아서, 순다열도 3부-아생 정글탐험, 북술리웨사)
		21:30 한국기행 (기차길 따라 겨울로)
		21:50 EBS 다큐 프리덤 (행복한 건축 3부-기억의 유산)
		22:45 극한직업 (창업 가구 제작)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접속)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3일(음 12월 25일 乙卯)	
	48년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60년생 까다로울 것이니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72년생 터놓고 얘기해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84년생 활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66, 69		42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면 처리가 용이하다. 54년생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66년생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해소하게 된다. 78년생 날카롭게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야기한다. 행운의 숫자 : 39, 28
	49년생 근심이 되는 일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패인이 붙는다. 61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많은 부자유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73년생 기준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위기를 모면하리라. 85년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2, 83		43년생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5년생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저 소모적일 뿐이다. 67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임을 꼭 인식해야 할 것이다. 79년생 안정이 곧 성공의 초석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8, 09
	50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노파심을 버리고 편하게 지내다 되는 마당이다. 62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뽕하고 해가 뜨리라. 74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너무나 공허하겠다. 86년생 실속도 찾아라. 행운의 숫자 : 43, 24		44년생 무의식중에 쉽게 속을 수도 있는 날이다. 56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대국을 망친다. 68년생 불균형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보일 것이니 속히 바로 잡아라. 80년생 성숙함을 보일 줄 아는 국량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9, 67
	51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었다. 63년생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취할 수 있다. 87년생 참고 있으면 이룬 점이 곧 풀리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05		45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57년생 타당성이 없으니 무사해도 된다. 69년생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81년생 일의 행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성공이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99
	40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52년생 판단의 징표를 찾게 되리라. 64년생 기본에 충실 하라. 76년생 고난은 미래를 여는 훈련장이 되리라. 88년생 현대에 집착하지 않고 훗날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3, 53		46년생 생각을 달리한다면 새로운 일이 보일 것이다. 58년생 확인과 검토는 오류를 방지할 것이다. 70년생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82년생 사용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64
	41년생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53년생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판에 놓여 있다. 65년생 의외해 보는 것도 괜찮다. 77년생 소담함에 봉착할 수 있다. 89년생 영장된 실태가 풀리겠다. 행운의 숫자 : 60, 16		47년생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비에 휘말린다. 59년생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리라. 71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83년생 부수적인 것보다 주된 핵심을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87, 22